박태환 선수가 한국 수영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딴 10일 광주체육중 수영부 선수들이 교내 수영장에서 미래의 금메달을 희망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노화정, 김지현양, 한솔희군, 전이연, 이정인양.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박태환 키드' 올림픽 꿈나무 광주 체육중 수영부

국가대표 되려 방학 특훈 "다음엔 우리가 金 딸게요"

"대표팀에서 태환 오빠랑 함께 운동하는 게 꿈이에요."

박태환(단국대) 선수가 올림픽 사상 첫 수영 금메달을 따내며 한국 수영의 역사를 새로 쓴 10일. 방학이자 휴일이었지만 '수영 꿈나무들'인 광주 체육중 수영부 선수들은 교내 수영장에서 미래의 금메달을 꿈꾸며 땀을 흘리고 있었다.

2학년 노화정양은 "부모님이랑 TV로 박태환 선수의 경기 모습을 봤는데 너무 멋있었다"며 "방학동안 집에서 쉬는 친구들이 부럽긴 하지만 박태환 선수처럼 되기 위해선 열심히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영 선수인 2학년 김지현양은 최근 있었던 국가대표 상비군 선발전에서 0.09초 차이로 아깝게 탈락했다. 올해 광주에서 열린 제37회 소년체전 배영 50m에서 금메달은 차지한 김양은 "다음 기회에는 꼭 대표팀에 선발될 수 있도록 특별훈련중"이라며 "운동을 할 때는 힘들지만 시합 전 긴장과 떨림이 즐겁다"고 말했다.

접영 선수인 전이연(2학년)양은 "기록을 줄였을 때 그 짜릿함이 힘을 솟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다"며 "하루 훈련을 마치면 힘이 쫙 빠지는데 기록 단축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면 다시 집중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태환 선수와 같이 자유형 400m가 주종목인 한솔희(2학년)군은 "모든 종목에서 뛰어난 미국 수영 선수 펠프스를 가장 존경한다"며 "박태환 형의 경우 실력이 특출한 것은 물론 체격이 뛰어난 점이 가장 부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기 중에는 오전 6~8시, 오후 2~6시까지 하루 5~6시간 물 속에서 훈련한다. 방학 중에는 오전 훈련을 뺀 오후 훈련만 하고 있다. 하루 훈련량만 7천500m 정도. 이달 초 MBC배 전국수영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휴식을 취할 틈도 없이 9월초에 있을 수영연맹 회장배 전국대회 준비에 여념이 없다.

물 속에선 누구보다 진지하게 운동하지만 영락없는 사춘기 소년·소녀다. 박태환 선수의 사진으로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도배했다는 이정인(1학년)양은 "태환 오빠와 친해지기 위해서라도 꼭 대표선수에 뽑히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엘리트 수영의 인프라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 좋지 않은 편이다. 화정남초, 전남중, 상무고, 체육중·고 등에 수영부가 있지만 선수는 전체를 통털어도 40명을 넘지 않는다.

전문 지도자가 많지 않다 보니, 선수층이 가벼울 수 밖에 없고, 선수가 없기 때문에 지도자에 대한 대우도 시원찮은,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광주 동아병원 심상돈 원장이 팀 닥터를 자청해 근력 측정이나 부상 치료 등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체육중 박병훈(40) 감독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광주 선수들이 각종 전국대회의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어 대견하다"며 "박태환의 올림픽 금메달이 수영 붐으로 이어져 선수층이 확대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남성 출입금지 수영장 성차별?

광주 동구 청소년수련관 절대 다수 여성회원 위해 "오전 남자 불허" 변칙 운영

"남성 탈의실에 아들이 들어갈 수 없다니요."

두 아이의 엄마인 조모(40)씨는 지난 7일 오전 광주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을 찾았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매표소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9)의 입장을 거부당한 것이다.

수련관 관계자는 조씨에게 "오전에는 여성 고객만 수영장에 입장할 수 있다"며 "수영장에 들어가려면 아들은 놔두고 딸만 데리고 들어가라"고 말했다. 너무 어이가 없었던 조씨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항의했지만, "엄마와 딸이 수영을 하는 동안 아들은 대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는 대답만 돌아왔다. 조씨는 결국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긴 것은 수영장 고객들의 남녀 비율 때문이다. 정기회원만 1천여명에 이르는 동구 수련관 수영장 고객들 중 불과 20%만이 남성이고, 평일 오전에 수영장을 찾는 남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남성 출입금지'의 명분이 된 것이다.

수련관 관계자는 "방학을 맞아 정상 운영도 고려했지만 절대 다수인 여성 고객들의 반대로 결국 낮 12시까지인 평일 남성출입 금지시간을 오전 10시40분까지 줄이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들을 둔 부모들과 남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영장을 자주 이용하는 박모(12)군은 "오후에 수영장을 찾아도 '남자 애들은 빨리 나가라'는 아줌마들의 등쌀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오전 시간 남성 출입금지 정책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동구청 관계자는 "위탁운영 중인 수련관이 매년 1억여원의 적자를 보고 있어 구청도 수익에 관계된 부분을 시정하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전남 교통사고 가장 많은 곳 순천

사망자 최다는 여수

지난 2006년 이후 전남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지역은 순천이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는 여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남 21개 경찰서 관할 지역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순천이 4천4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목포 4천150건 ▲여수 3천215건 ▲나주 2천142건 등 순이었다.

이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여수 124명 ▲순천 108명 ▲나주 91명 ▲목포 89명 순으로, 발생 건수에 비해 여수와 나주의 사망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2007년 사망자 수 3위의 불명예를 안았던 목포는 지난해 1~7월 사망자 수가 23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14명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나주시는 지난해 같은 기간 20명에서 올해 22명으로 늘어나 3, 4위가 바뀌었다.

올해 1~7월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이 줄어든 곳은 지난해 16명이었던 장흥이 올해 8명으로, 강진이 11명에서 4명으로, 화순이 14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반면 광양은 8명에서 19명으로, 영광은 3명에서 9명으로, 해남이 16명에서 21명으로 늘었다. 한편, 2006년 이후 지난 7월까지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순천(7천398명) ▲목포(7천211명) ▲여수(4천921명) ▲나주(4천199명) 등 순이었다.

또 인구와 교통량이 적고 도서지역이 많은 진도의 경우 31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구례는 사망자 수(23명)가 가장 적은 곳으로 나타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사행성 '홀덤 바' 적발 잇따라

이른바 '홀덤 바'라고 불리는 사행성 짙은 포커 바가 광주 도심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10일 '홀덤 바'를 차려놓고 도박을 한 종업원 A(여·23)씨 등 8명을 도박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9일 밤 10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모 건물 5층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것으로 추정되는 칩 184매와 카드 52매를 압수했으며, '홀덤 바' 업주의 인적사항 파악과 정확한 도박 금액 등을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홀덤 바'를 차려놓고 수억 원대의 도박을 해온 업주 강모(36)씨와 손님 신모(49)씨 등 15명을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은 업주가 도심에 '홀덤 바'를 차려놓고 보드 게임방으로 위장해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른 점을 감안,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홀덤 바'는 포커 게임의 일종인 텍사스 홀뎀(Texas Hold'em)을 하는 장소다. 텍사스 '홀뎀'은 2장의 개인카드와 바닥에 펼치는 5장의 커뮤니티 카드로 베팅을 하는 포커 게임방식이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장성 교통사고 2명 사망 국토대장정 3명 또 탈진

8월 둘째 주 주말과 휴일인 9일과 10일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교통사고와 익사사고 등 사건·사고로 얼룩졌다.

10일 새벽 2시30분께 장성군 장성읍 용강리 장성댐 인근 지방도로에서 박모(22·장성군 황룡면)씨가 몰던 1t 포터 트럭이 길 옆 옹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박씨와 함께 타고 있던 최모(22·장성군 장성읍)씨 등 2명이 숨지고 이모(22·장성군 장성읍)씨 등 3명이 다쳤다.

이에 앞서 9일 오후 5시10분께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우산마을 앞 도로에서 승합차 2대가 충돌, 운전자 이모(51)씨가 숨지고 윤모(55)씨 등 4명이 다쳤다.

물놀이 사고와 탈진 사고도 잇따랐다. 지난 9일 오후 5시40분께 완도군 금당면 질마도 앞바다에서 유모(70)씨가 수영을 하다 숨졌다.

또 9일 오전 8시35분께 순천시 연향동 연향 3지구 도로에서 국토대장정에 나선 서울 K대학교 이모(24)씨 등 3명이 탈진해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대표 건축·산업자재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시시 제작 및 상담환영
▶서울본사 : 02) 3445-0943
▶나주공장 : 061) 337-05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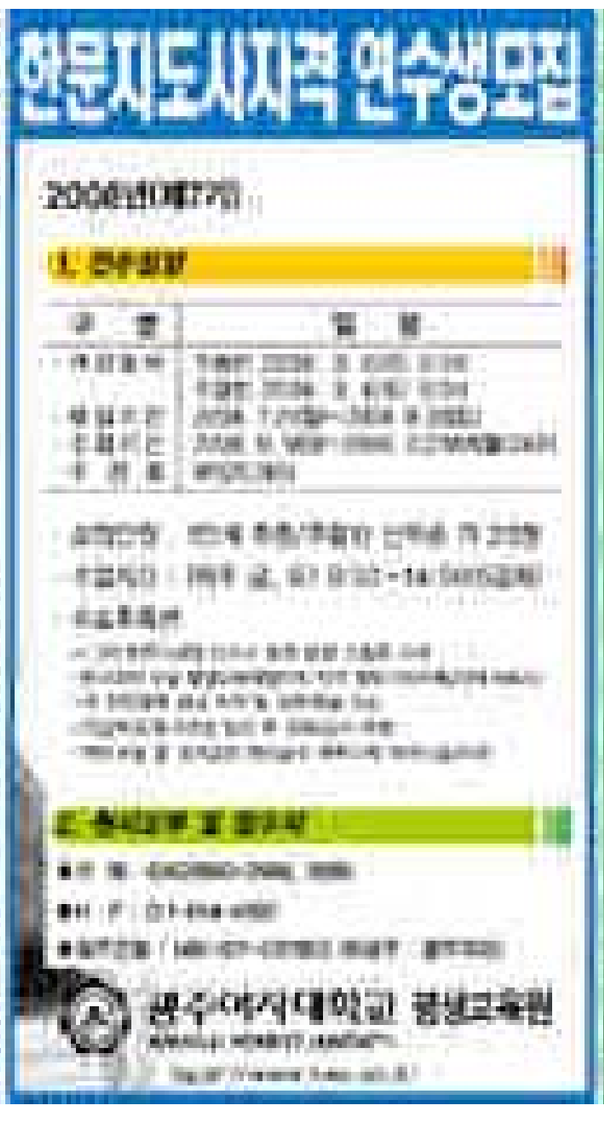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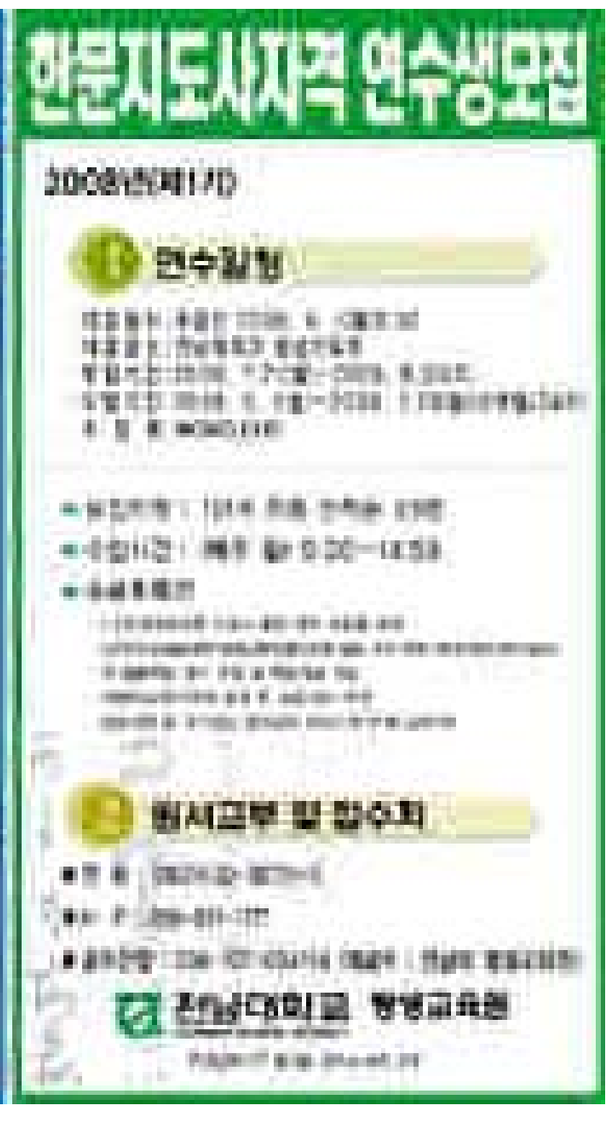
집유 기간 유사휘발유 팔려다 화상

쌍나팔

○…광주북부경찰은 10일 집행유예 기간에 유사휘발유를 또 다시 판매하려한 이모(56)씨에 대해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2일 밤 9시10분께 광주시 북구 각화동 자신의 사업장 앞길에서 4t 탑차 유류저장 탱크에 4천300ℓ를 옮겨 싣던 중 전등을 켜는 과정에서 튄 전기 불꽃이 공기 중에 가득한 유증기(油烝氣)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나 59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전신화상을 입은 이씨는 화재 직후 도주했으나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으며, 2~3개월 가량 병원 신세를 진 뒤 경찰서행.

○…경찰은 이씨가 지난 2006년에도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 붙잡혀 집행유예 기간임을 감안,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